

에이알시스템 GRC ICEraQ PICO 액침냉각시스템 국내 출시

5U 폼팩터 갖춰 액침냉각 라이브 데모용 적합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에이알시스템(대표 한상모)은 콤팩트 타입 액침냉각시스템인 'GRC ICEraQ PICO'를 신규로 론칭한다고 밝혔다.

ICEraQ PICO는 5U 폼팩터를 갖춘 액침냉각시스템으로 소규모 전산실, 엣지 DC(데이터센터), 첨단 IT쇼룸 등에 설치해 액침냉각 라이브 데모 및 시연을 하기 위해 적합하도록 디자인된 제품이다.

ICEraQ PICO는 액침냉각 전용 쿨러트(냉각용액)의 쿨링 메커니즘을 기존의 ICEraQ SX시리즈 제품(Duo, Quad)과 동일하게 설계해 GRC 액침냉각시스템의 쿨링솔루션을 동일하게 구현했다.

이에 따라 GRC 액침냉각시스템의 냉각솔루션 특징과 성능을 미리 체험하고 소규모 용량에 대해 상용서버를 이용한 액침냉각 운영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ICEraQ PICO는 일체형 에어쿨링시스템이 내부에 장착돼 있어 별도의 외부 냉동기, 칠러 등 운용이 필요 없는 독립형(Stand-alone) 시스템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설치장소 제약이 거의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AI-HPC 환경 지원

냉수 또는 냉각수 등 공급수가 필요

없는 쿨링방식이므로 오피스 내부나 실험실, 전시실 등에 간편하게 설치해 운영이 가능하며 서버전원 공급을 위한 PDU도 함께 들어있어 편리한 설치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전면부에 LED가 장착된 대형 강화유리 패널을 탑재했다. 이처럼 냉각용액에 담겨진 내부 서버를 볼 수 있도록 디자인돼 액침냉각 시연현장이나 사무실, IT 룸 등에서의 시연효율성을 높였다.

서버가 탑재되는 랙은 5U 폼팩터로 구성돼있어 범용성을 확보했다.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AI서버도 장착이 가능하도록 랙 깊이를 깊게 설계해 GPU서버도 설치 가능하다.

또한 좌우 두 측면에는 스위치박스와 네트워크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 서버구축 및 설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한상모 에이알시스템 대표는 "액침냉각은 기술 및 시스템 특성상 실제 시스템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제품도입 및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이번에 새롭게 론칭하는 GRC ICEraQ PICO는 이러한 수요에 꼭 맞는 제품으로서 자리를 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



▲ GRC ICEraQ PICO.



▲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DCWA 2024에서 GRC의 관계자가 글로벌시장에 선출시된 ICEraQ PICO를 소개하고 있다.

조했다.

이어 "기존에 출시한 플래그십 액침냉각시스템인 ICEraQ Micro, Duo, Quad와 함께 더 폭 넓은 액침냉각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돼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칸